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一考

이 석 우(경희대 교수)

I

야스퍼스가 말한 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의지란 존재의 중심이고 어쩌면 삶 그 자체였다.¹⁾ 우리는 매일 간단 없는 행위 요구와 충동적 자극, 유혹과 허상 그리고 정서적 기복을 겪으며 산다. 이들은 항상 내적 의지와 뿔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는 선택의 기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더구나 늘상 죄의식과 예민한 감성에 시달렸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문제는 가장 절실하게 부딪쳐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내적 갈등과 좌절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때문에 심리학의 길을 열었다고까지 말해지고 있다.²⁾ 확실히 의지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의지의 자유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선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의지론의 골격이다.

자유의지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죄를 범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 이유는 자유의지 없이는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면 의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 역시 불공평할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형벌이나 보상도 부당할 것입니다.³⁾

그러나 의지에는 부자유 의지의 영역 *The world of unfree will*과 자유의지의 영역 *The world of free will*이 있다. 부자유 의지의 세계란 의지가 복종하지 않는 영역, 즉 탐욕 같은 것으로 의지가 행동에까지 옮겨지지 않고 무산되거나 의지할 수 없는 의지를 말한다. 반면 자유의지의 세계란 사랑이 더 이상의 당위 *ought*를 필요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행하고 선한 결의 없이도 탐욕을 헤쳐버리고 의지한대로 할 수 있는 의지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랑의 의지가 그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⁴⁾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인간의 뜻대로 행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인간

1) K. Jaspers, *Plato and Augustine*(New York : A Helen And Kurt Wolff Book, 1962), p. 88.

2) 같은 책, pp. 88-89.

3) *De libero arbitrio*, II, i, 2 (박일민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서울 : 풍만출판사, 1989) 참조.

4) K. Jaspers, 앞의 책, p. 93.

의 힘으로 의지하여 전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행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점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와 은총에 대해 그릇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의 저서 『영과 의문에 관하여』에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그들(펠라기우스파)은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 자체의 힘만으로 완전한 의 perfect righteousness를 성취하거나 그것을 향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격렬하고 날카롭게 비판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그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물으면 그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불경건하게 들리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유로 선택하는 인생 행로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 무지를 제거함으로써 사람이 행동할 때에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미 행해졌다.⁵⁾

이 같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의지는 법을 지킬 능력을 갖고 있으며 비록 지키는 데 실패하더라도 인간적인 노력을 다시 함으로써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5세기 무렵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 의지의 완전성을 믿는 데서 온 것이다. 두 번째로 앞의 주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적 국면에만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적 역할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⁶⁾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의 은총을 인간의 의지의 능력capacity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impotence에서 구하며 이를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힘, 즉 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의지의 행사와 그를 실행에 옮길 힘의 행사는 두 개의 다른 기능이라는 것이다. 의지와 능력은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 자신의 힘our own power이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자유의지의 문제는 좀더 쉽게 풀릴 수 있다. 거기에는 두 개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의 행사the experience of will와 힘의 행사 the exercise of power이다.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힘을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며, 힘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때로 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또는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있듯이 말이다.⁷⁾

요컨대 의욕과 능력은 다르다는 얘기다.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할 수 있다고 반드시 원하는 것도 아니다. 라틴어에서 〈의욕voluntas〉은 〈하기를 원한다velle〉에서 나왔고, 〈능력potestas〉은 〈할 수 있다posse〉에서 유래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욕이 있는 것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능력이 작용하려면 의욕이 또한 있어야 한다.⁸⁾

5)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4.

6) P. Lehmann, "The Anti-Pelegian Writings," R. W.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6), p. 216.

7)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53.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다. 펠라기우스는 의지의 본질이란 선택하는 힘 the power to choose을 뜻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적 기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 작용의 선택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은혜의 권능적 기능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로운 행사는 선택의 능력 capacity to choos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능력 capacity to fulfill에 있기> 때문이다.¹⁰⁾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책 『영과 의문(義文)에 대하여』에서 <본성에 의해 은혜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에 의해 본성이 바로 잡혀진다> ¹¹⁾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레만 Lehmann은 지적하고 있다.¹²⁾ 그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죄는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며 그것을 치유하는 것 또한 은혜이다.¹³⁾

요컨대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영역을 <본성>에서 구하고 있는데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의 맥락 안에서 찾고 있다.¹⁴⁾ 펠라기우스에게 <본성>이란 모든 사물을 질서 짓는 필연성이므로 의지의 자기 결정 self-determination은 인과(因果)의 질서와 모순되는 것이다.¹⁵⁾ 은혜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여준 신의 행위와 의도였으며 이제 피조물이 선택하는 의지의 행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란 창조의 은총에 합당한 것이지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주장이다.¹⁶⁾

II

여기에서 필연성과 자유의 문제가 제기된다. 펠라기우스는 속성상 필연에 묶인 것은 어떤 것도 자유라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인간 의지의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본성의 필연성에 있다고 본다.¹⁷⁾ 우리가 듣고 냄새 맡고 보는 것은 우리의 힘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성의 필연성에 따른다는 것이다.¹⁸⁾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본성>을 인과의 질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질 human constitution>로 본다. 물론 거기에는 일종의 필연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필연성>이란 의지 자체에 의해 의지에 가해진 필연성일 따름이다.¹⁹⁾ 그러므로 무생물의 필연과 인간 의지의 작용은 다르다. 예를 들면, 돌의 운동

8) 같은 책.

9) P. Lehmann, 앞의 책, p. 217.

10) 같은 책.

11) *On the Spirit and th Letter*, 47.

12) P. Lehamann, 앞의 책, p. 217.

13)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47.

14) P. Lehmann, 앞의 책, p. 217.

15) 같은 책.

16) 같은 책.

17) 같은 책, pp. 217-218.

18) *On the Nature and Grace*, 54, 55, 59.

19) P. Lehmann, 앞의 책, p. 218.

은 자연적이지만 영혼의 운동은 자발적이다.²⁰⁾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유는 단순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바르게 행동하는 자유를 뜻한다. 이 때문에 그 같은 자유는 선택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다.²¹⁾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자유인 셈이다. 의지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이지만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때문에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래서 키르완C. Kirwan은 이 같은 자유의지를 제3의 자유의지라 부르는 것 같다.²²⁾ 그는 자유의지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선택은 하지만 필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람은 단지 필연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라고 보긴 어렵다.²³⁾ 두 번째의 경우 흄Hume이 정의한 대로 행하고 행하지 않는 힘이 전적으로 의지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에라스무스Erasmus, 데카르트Descartes, 로크Locke 등이 주장하는 자유로서 근대적 의미의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인정된다. 마지막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자유의지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자유의지를 합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래서 인간 의지가 자유롭다는 말은 인간이 그들의 의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은 단순한 의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유의지는 자발적 행동의 선결 요건이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의 여부는 힘, 즉 능력에 속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 점에 있다.²⁵⁾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 일치할 때는 행동에 옮겨 지지만 의지에 비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는 실천에 옮겨질 수 없다.²⁶⁾ 이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소관이며 하나님께 책임이 옮겨질 일이 아니다. 우리 죄의 근원은 우리의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영원한 법을 따르는 자유의지의 행사가 아니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다.²⁸⁾ 그 선택이 우리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벌은 정당화된다. 그 때문에 자유의지가 부여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 뿐이다.²⁹⁾

신이 자신에게 배치되는 행위를 할 줄 알면서도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은 자유와 신의 예지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말한다. 바로 이 점이 신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신은 영원하고 예지를 갖고 있으므로 인간의 운명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신을 필연의 구속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은 아니

20) *De libero arbitrio*, III, i, 2.

21) P. Brown, *Agustine of Hippo*(London : Faber & Faber, 1968), p. 374.

22) C. Kirwan, *Augustine*(London : Routledge, 1989), p. 83.

23) 같은 책.

24) 같은 책, pp. 88-89.

25) 같은 책.

26) K. Jaspers, 앞의 책, p. 90.

27) *De libero arbitrio*, I, xvi, 35.

28) *De libero arbitrio*, I, xv, 32.

29) *De libero arbitrio*, II, xviii, 48.

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다. 이는 능동적인 힘(active powers)과 수동적인 책임(passive liabilities) 사이에는 구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곧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³⁰⁾ 다시 말해 필연성이 지배하는 곳에는 죄를 범함에 있어 자발적인 선택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고정되고 피할 수 없는 필연성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³¹⁾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적 의미에서의 본성적 필연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자유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의지의 자유는 선택의 힘보다 더 깊숙한 데 있다고 못박았다. 결국 의지를 성취시키는 것은 능력(힘)이며 이는 곧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다.³²⁾ 인간의지는 무능을 통하여 자유로워지고, 자유를 통하여 무력해지는 것이지 자유를 통하여 더욱 강해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이란 무엇이 선한 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왜냐하면 이해가 설혹 앞서서 달리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국 사랑하는 것을 택한다.³³⁾ 사랑과 의지를 거의 동일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³⁴⁾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감정과 지식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능력은 자기 안으로부터 보다는 밖으로부터 온다. 여호와가 길을 인도하심이 길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은 원리이다.³⁵⁾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에게 자유란 의식과 선택의 일치를 통한 인간의 자아 결단을 완성시킬 성질의 것이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유란 언제나 성취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며 미완성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자유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취될 성질의 것이었다.³⁶⁾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유란 치유 과정의 극치일 뿐이다. 자유의 훈련을 통해 치유에 이른 사람은 보다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에게서 처럼 처음부터 소유된 자유가 아니라 은총을 통해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유란 단순히 선택의 감정으로 축소되지 않고 그것은 온전하게 행동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같은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초월하는 것이다.³⁷⁾ 그래서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 민음사(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84)에서 발췌, pp. 236-244]

30) C. Kirwan, 앞의 책, p. 92.

31) *De libero arbitrio*, III, iii, 6.

32) P. Lehmann, 앞의 책, p. 219.

33) *Enarrationes in Psalmos*, viii, i, 2.

34) K. Jaspers, 앞의 책, p. 95.

35) P. Brown, 앞의 책, p. 373.

36) 같은 책.

37) 같은 책, p. 374.